

名士기권하는 인권의척



잠재의식의 힘

임희동 포천법원장

다. 그러나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끌어 내고, 삶에서 이용하는 나쁜 절대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고 현실을 내 의지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 - 바로 잠재의식의 힘으로 새로운 삶, 조화로운 인간관계, 행복한 인생을 엮어 가기를 바란다. 당신은 이 책에 내재된 강력한 핵심프로그램에 의해 일독을 하는 순간 어느새 성공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자신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조셉머피 지음/김희덕 편역/미래문화사)

양기원 축협장 再選 성공

개표결과 양기원 813표 이한인 667표

지난 24일 실시된 포천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양기원 현 축협장이 이한인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5개 선거구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1천939명 가운데 1천483명이 투표에 참여해 76.48%의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결과 양기원 후보 813표, 이한인 후보 667표, 무표 3표 등으로 양 후보가 146표 차이로 당선됐다. 한편 양기원 당선자는 "성원해 주신 축산인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축산인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포천 축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당선자는 공약사항으로 ▶참여가 보장되는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경영 ▶열려있는 축협, 변화하는 축협, 봉사하는 축협 ▶큰 만족의 환원사업 전개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한 노동조합협약 ▶포천축협



지난 24일 실시된 포천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양기원 현 축협장이 재선에 성공한후 당선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브랜드 정착 ▶축산폐수처리시설 합일 상호금융리 인하 등을 내세워 경쟁 ▶경제사업 활성화 정립 ▶조

포천 심터



석혜승 본문정사 주지

갈등해결

어느 가족 상담 연구원의 말에 의하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 지향적인 자세를 피하고 현재 지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고패턴은 어떤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 아주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이 갈등상황에서 만류는 아주 무모한 일이 된다. 왜냐하면 잘못은 했지만 잘못을 한 원인이 너에게도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다툼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고, 설혹 한쪽이 잘못을

시인했다더라도 죄인으로 판명된 그 사람은 그로 인해 억울한 심정을 갖게 되고 결국 더 큰 갈등을 낳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에서 법률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이란 최후의 수단이지 그 법의 잣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침은 아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를 찾는 것은 갈등의 골을 점점 깊게 만들뿐이다. 그것은 가정에 국한 된 이야기만 아니다. 누구 때문이었는가를 찾기 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 중심적이고 현재 지향적인 자세가 절실한 요즘인 것 같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베어스타운 스키장 안전점검 실시

포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현장활동



포천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7일간 임시회를 개최했으며 산업도시위원회는 베어스타운 스키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포천시의회(의장 홍성훈)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제2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 2006년도 시장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집행부가 제출한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포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안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또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이천목) 6명의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 15명이 25일 베어스타운 스키장(대표 민석홍)을 방문해 8개 리프트 등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운영업체의 안전의식 고취와 스키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스키장 리프트, 콘도라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됐다. 특히 시설물 안전관련 규정준수 여부, 구난체계 계획수립 및 구난장비 확보실태 등의 안전관리 실태와 지주, 선로, 탑승장 등 각종 시설물과 밧줄, 긴장장치, 제동장치 등 사도의 주요부분 등의 안전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또는 개선권고 등으로 신속한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하승환 기자 form66@paran.com

신북면새마을회, 매주 만들어 불우이웃돕기 실천

신북면새마을회(협의회장 이남호·부녀회장 왕성효)는 지난해에 이어 정성껏 빚은 메주를 판매한다. 신북면새마을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1일까지 왕성효 부녀회장 자택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가마(17가마 70kg)를 이용해 '사랑의 메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랑의 메주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의 메주는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돼 수익금을 살이나 추석 등 명절에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신북면 부녀회에서 만든 메주는 현재 1말(4령어리)에 6만원씩 판매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북면새마을회(왕성효 부녀회장 011-770-3841)로 하면 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영북면 未來 우리가 이끌어요”

2006 기수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21일 영북면 기수연합회는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를 대표할 단체로 육성하고 나아가 영북의 전통취급 및 지역발전이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성됐다. 사업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전 회원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 무의탁 독거노인 연탄지급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1994년 육육회(59년생), 육이회(62년생), 칠육회(64년생), 백마회(66년생)등 4개 기수별 친목회 120여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초대회장 박경희, 2·3대 회장 권대남, 4대 한영환, 5·6대 전상수, 7대 김재영 회장에 이르기까지 12년째 활동중이며 현재 12개 기수별 회원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관인의소대, 설 맞이 사랑의 나눔

11개리 어려운 가정방문 쌀과 라면 전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지난 18일 관인 의용소방대(대장 안운빈)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쌀(10kg)과 라면(2박스)을 준비하여 각 리별(11개리)로 어려운 가정방문하여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올해 '사랑의 나눔 행사'에는 지난해에 비해 불 날씨가 연상케하는 조기한 날씨 속에 행사가 치루게 되어 대원들의 정성이 하늘에 전달된 듯 싶다. 하승환 기자 form66@paran.com

한편 관인의용소방대는 2005년 경기도 의용(여성)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직관리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상황을 지도,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와 각종 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관인에서 관인의용소방대가 '최우수 의용소방대'로 선정된 바 있다. 하승환 기자 form66@paran.com



지난 18일 관인 의용소방대원들은 '설'을 맞이하여 각 리별(11개리)로 어려운 가정방문하여 쌀과 라면을 전달했다.

포천시 人事

▶이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이한철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직무대리. 이상 2006년 1월 20일자

포천시 새마을운동 역사 다시 쓴다

(사)포천시새마을회 創立總會

사단법인 포천시새마을회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강태선)는 지난 23일 포천시여성회관 청성홀에서 사단법인 포천시새마을회 창립총회를 갖고 정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강태선 포천시회회의원을 회장으로 사단법인 체제로 본격 출범했다. 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군민·자조·협동을 통한 포천발전의 목적으로 군내면 직두리에 신축예정인 새마을회관 등 각종농수산업추진을 앞두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을 구성함으로써 세입·세출과 각종 새마을운동 사업 등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는 박운국 포천시장, 홍성훈 포천시회회의장과 포천시새마을회(이하 새마을회) 임원 및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마련됐다. 창립총회는 설립추진위원장이인 사, 내빈 축사, 경과보고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승인에관한건·사무소설치에관한건·회원회비에관한건·2005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2006년도사업계획및세입세출예산·임원선임에관한건 등 의안심의, 강태선 신임회장 및 새마을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강태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에는 포천에서 군내면 직두리에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용 5억원을 지원해주는 등 새마을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새마을회원들의 힘을 모아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사단법인 포천시새마을회 설립준비위원회는 지난 23일 포천시여성회관 청성홀에서 사단법인 포천시새마을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반세기 향군사를 다시 쓰자’ 결의

포천시재향군인회 제20대 이광호 회장 就任

포천시재향군인회는 지난 20일 포천시여성회관 청성홀에서 제44차 정기총회 및 제20대 회장 취임 기념식을 개최했다. 포천시재향군인회의 1년을 정리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제19대에 이어 20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광호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고조흥 국회의원, 박운국 포천시장, 홍성훈 포천시의회의장, 김영식 의정부부훈지청장 등 내빈과 향군회원 300여명이 참여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표창, 장학금 전달, 소년소녀가장들이 성금을 전달해 참석자들에게 훈훈함을 전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유공자표창에는 ▶분회장 공로패 이사 강수영 ▶분회장 표창 여성회 부회장 이미자 ▶도회장 감사패 8사단 군악대 악장 정용내 ▶국회의원 표창 전 신북면 회장 박성봉, 전영북면 회장 박금식 ▶회장 표창 영북면 회장 최영호가 수상했고, 장학금은 홍성우(포천중 3년)·이효연(포천여중 3년)학생이 받았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포천시향군여성회(회장 박미옥)가 포천시(시장 박운국)에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사용돼 달려며 30만원의 성금을 전달해 참석자들에게 훈훈함을 전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재향군인회기 지난 20일 포천시여성회관 청성홀에서 제44차 정기총회 및 제20대 회장 취임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광호 회장이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

우 리 동 네 를 말 한 다 (58)

동교1통 통장 정낙훈

공동의식으로 뭉친 역사와 전통의 마을

포천시 동교1통은 선단동과 소흘읍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와 전통을 계승, 주민화합과 단합을 이룩하고 있는 마을이다. 동교 1통을 포함한 동교동은 예부터 수많은 인구를 가진 역사와 전통의 마을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몇 년 전까지도 동교동 418번지와 617번지 일대에는 수많은 고급기와와 사기그릇의 파편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동교동은 본래 지금의 동교동을 가운데로 끼고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동교동에서 실은동으로 가는 이동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던 큰 규모의 들다리와 지금의 동교 3통 지역인 동교동 저수지 제방아래에 명주실 한 타래가 들어가지도 모자랐다는 구전이 전해지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소'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엄청난 흉수로 인해 소를 메우고 들다리가 공중에 떠 있었다는 전설을 통해 동교리의 이름을 짐작할 수 있다. 지명 유래에 따르면 동교리는 '뽕다리' 또는 '뽕다리'로 불리고 있으며, 뽕다리는 동쪽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장 4년차로 현재 동교1통을 이끌고 있는 정낙훈(54) 통장으로 부터 동교1통의 현황과 발전상을 들었다. 동교1통은 원래 원동교로 불리고 있으며, 농지와 공작지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아직은 농지가 공작지대 많이 있어 농촌의 풍경과 정겨움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마을에는 194세대 가구당 2.5명당 478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이중 원주민은 96세대가 남아 있다.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으며, 전제가구 중 38호가 이에 해당한다. 농업은 수도작과 원예(오이)를 위주로 경작되고 있다. 마을엔 정낙훈 통장을 중심으로 청년회(회장 이병창), 부녀회

(회장 박용자), 노인회(회장 이병창) 등의 단체가 유기적인 협력 속에 마을 발전을 이루고 있다. 노인회의 경우 환갑이 넘으면 자연 회원으로 가입되고, 현재 7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노인회는 평생시 마을 환경정화 활동과 공동 경작, 서예교실 등을 통해 최근 농촌마을에 대두되고 있는 노인층의 여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 이장은 "참깨, 콩 등의 공동 경작을 통해 노인회 기금을 마련하고, 전 포천면 부면장을 지낸 이병춘 씨의 지도로 운영되는 한 자교실을 통해 배움의 기회도 제공하며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회는 33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고, 만23세부터 50세까지로 마을의 경조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칩사대회와 하천 정비 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정 통장은 "농촌 교령화에 따

라 청년회 상한 연령을 53세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을발전이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말했다. 부녀회는 3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인회와 청년회를 도와 안방살림을 맡고 있다. 한편 동교1통은 연중 2월 칩사대회와 5월 경로잔치를 통해 각 단체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정 통장은 동교1통을 화합과 단합이 잘되는 최고의 마을로 소개한다. "마을 임시 및 정기총회 등 반상회 소집시 주민들이 70~100여명 정도 참석할 정도로 마을 일에 관심이 있어 한다"며 "주민들의 믿음을 통해 마을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화합과 단결이 잘되는 동교1통도 정작 개발의 바람 앞에서는 소외되는 듯 하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정낙훈 통장 동교1통

마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인 송우택자와 자작동 잇는 도로 등이 하루 속히 건설되길 바라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의 견이다. 정 통장은 "주민 모두는 마을 발전의 원동력이 될 도로가 하루 속히 건설돼 마을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마을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도모를 아끼지 않는 강병수 선단통장, 이천목 포천시의회의원, 김남현 선단동 사무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